



29일 오전 담양군 봉산면 호남문화재연구원 가마에서 김치준 도예가가 마한 토기를 복원하기 위한 소성에 앞서 작품을 보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

1500년 전 ‘마한’ 물·흙·불로 되살리다

(재)호남문화재연구원, 마한토기 복원사업...29일 가마에서 소성 ‘역사문화권 정비 특별법’ 시행 계기로 10개 기종 100여점 복원

작은 불꽃이 부스스 일었다. 마침내 마한 나무에 불이 붙었다. 불꽃은 고대의 시간 속으로 서서히 역류해 들어갔다. 늦가을 장작 타는 냄새가 코끝을 스치고 허공으로 퍼졌다. 이제 가마는 뜨거운 불을 견뎌내야 한다. 최소 3일 이상 1200도 이상의 고온의 열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비로소 그릇이 될 수 있다.

마한토기 복원을 위한 소성(燒成) 작업은 그렇게 시작됐다. 토기 복원은 1500여년 전 역사 속으로 떠나는 시간여행이다. 고대인들의 다양한 삶과 문화를 간접체험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담양 봉산면에 있는 (재)호남문화재연구원(이사장 임영진)은 29일 오전 연구원 내 자리한 가마에서 마한토기 복원을 위한 소성작업을 공개했다.

이번 복원작업은 마한역사문화권이 포함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이뤄졌다. 전문문화와 문화재, 매장문화재에 대한 조사 등의 학술사업이 연구원의 설립목적이라면, 이번 토기복원은 연구원의 정체성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토기는 문헌자료가 부족한 고대사회의 면모를 파악하는 데 있어 널리 사용되는 고고학 자료다. 매장 유적뿐 아니라 주거시설이나 무덤 등에서 출토되는 까맣게 특정 사회의 다양한 모습들을 담고 있다.

대체로 고분에서 발견된 마한옹기는 박물관 등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많다. 그러나 토기는 백제나 신라 등 다른 고대국가에서도 만들어진 탓에 구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연구원에서는 이번 복원을 통해 일반인들이나 학생들이 마한 문화와 풍습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사실 마한은 고대(1~3세기경)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정치체력이었다. 호남의 빗줄인 영산강을 중심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형성했던 마한은 오늘날 전라도 문화의 토대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도의 젓줄인 영산강을 배경으로 드넓게 펼쳐진 나주평야는 고대시대부터 지배세력의 중요한 터전이었다. 특히 다시면 복암리 일대의 고분은 고대 지배세력의 수준 높은 유물들이 출토돼 관심을 끌었다.

연구원은 이번 복원을 위해 광주전남지역 주요 유적에서 출토된 마한토기 가운데 10개 기종을 선정했다. 그 가운데 100점을 성형, 건조시킨 다음 가마에 불을 때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마한토기 중 대표적인 토기는 발, 장란형토기, 시루, 완, 양이부호, 이중구연호, 유공광구호, 개배, 뚜껑, 조형 토기 등이 있다.

전형민 기획과장은 “이번 마한토기 복원제작 프로젝

트를 통해 마한 사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고고학 자료로서의 마한 실재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연구원에서는 대표적인 마한토기 등을 관찰해 제작방법에 대해 추정하고 그 방법을 대입해 가장 적합한 제작방법을 선택했다. 소성토기의 태도를 재현하기 위해 영산강유역에서 확인된 가마유적을 견학하고 그 주변에서의 흙을 채취, 배합해 출토된 토기와 유사한 태도의 배합률을 얻도록 노력했다. 이번 작업이 끝나면 연구원에서는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후 보완 작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4월부터 복원작업에 참여 중인 김치준 도예가는 “토기는 전반적인 삶과 죽음의 기능을 연결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 외에도 대륙문화와 해양문화의 접점을 이룬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가마의 불 때가 작업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작업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토기가 서서히 식을 때까지 또 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물과 흙, 불이 만나 하나의 문화로 응결되는 과정은 마치 하나의 생명의 태어나는 것처럼 느껴진다.

임영진 이사장은 “백제나 신라의 역사문화권에서는 ‘백제요’, ‘신라요’가 만들어져서 그 시대 토기를 상품화하여 널리 알리고 있다”며 “마한토기 복원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마한의 문화를 연구하고 알리는 데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립오페라단 ‘월드 클래식 오페라 시리즈 I’이 12월 3~4일 ACC에서 열린다.

오페라 명작들 한자리에

광주시립오페라단, 12월3~4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오페라 역사에 빛나는 명작들을 한자리에 만날 수 있는 무대가 펼쳐진다.

광주시립오페라단의 ‘월드 클래식 오페라 시리즈 I’ 공연이 오는 12월 3~4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1에서 열린다.

3일 오후 7시30분에 열리는 공연은 ‘오페라 in 오페레타 ‘박쥐’로 꾸며지며, 4일 오후 5시에는 ‘월드 뮤직 하이라이트(World Music Highlight)’를 선보인다.

‘오페라 in 오페레타 ‘박쥐’ 무대는 오페레타 ‘박쥐’에 나오는 다양한 오페라 명곡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다. ‘라 트라비아타’, ‘토스카’, ‘투란도트’ 등을 춤과 음악, 영상과 함께 선보인다.

‘월드 뮤직 하이라이트’에서는 권호진·김미옥·고규남 등 광주를 대표하는 성악가

60여명이 세기의 명곡들을 통해 광주 음악계의 새로운 미래를 선보일 예정이다. 쉽고 재미있는 해설과 화려한 영상을 더해 오페라를 누구나 쉽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대중이 사랑하는 뮤지컬 넘버와 한국가곡, 러시아 민요, 오페라 대표 합창곡 등을 들려준다.

이번 공연의 예술감독과 지휘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교수이자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인 장운성이 맡는다. 연출에는 한국 오페라계의 대표적인 연출가 최지영이 참여하며, 뉴서울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워너 오페라 합창단의 합창이 더해질 예정이다. 전석 2만 원이며 티켓은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와 티켓링크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문의 062-412-2507.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하모니카의 아름다운 울림’ 공연을 여는 (사)뉴월드하모니카 문화예술교육협회 회원들.

초겨울 밤 ‘하모니카 울림’

(사)뉴월드하모니카 공연, 12월 4일 광주교육대

하모니카의 맑고 청량한 소리가 빗고을 초겨울 밤을 수놓는다.

‘하모니카의 아름다운 울림3’ 콘서트가 오는 12월 4일 오후 5시 광주교육대 에듀컬처 아트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사)뉴월드하모니카 문화예술교육협회(협회장 황금화)의 격년제 정기 공연으로 광 주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세 번째 하모니카의 대향연이다. 이번 공연은 황금화 협회장이 직접 가르친 하모니카 강사·회원 35명이 솔로와 독주, 앙상블로 다채롭게 선보인다.

주요 연주곡은 ‘라 플라야’와 ‘엘칸토파사’, ‘탑 오브 더 월드’ 등 추억의 팝송, 오페바흐의 ‘천국과 지옥’ 그리고 ‘올롱도트

위스트’, ‘용두산 엘레지’, ‘회룡포’ 등의 트로트를 비롯해서 낭만과 추억이 깃든 20여 곡이 무대에 오르게 된다.

특히 최연소 출연자인 김윤서(대차초 1년)와 김진구 회원이 함께 연주하는 ‘윤진 하모니’는 할아버지와 손녀의 세대를 넘나드는 듀오로 ‘즐거운 나의 집’을 편곡하여 연말 가정의 포근함을 전하게 된다.

황금화 협회장은 “원래는 지난 7월 몽골 해외 공연을 하기 위해 준비했었는데 전세계 팬데믹으로 취소가 되어 아쉽지만,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치유하고자 마련한 공연”이라고 말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이승우 ‘꽃 창살과 망초’전 12월1일~20일 고흥 도화현미술관

고흥반도의 끝자락에 자리한 도화현미술관(관장 박성환)이 도화현 레지던시 참여작가 이승우 작가 개인전을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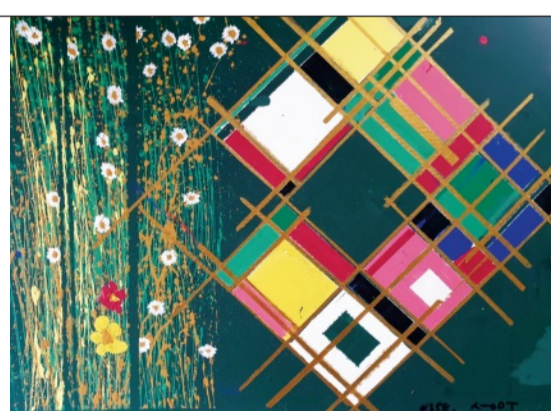
전남문화재단 공간연계형 창작활동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에서 이 작가는 ‘꽃 창살과 망초’ 주제로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인다.

이 작가는 바람에 꽃잎이 흩날리듯 캔버스 위에 다양한 색채의 물감을 드리핑(dripping)하며 작품을 완성해 나간다. 우연이기도, 필연이기도 한 움직임과 색채의 조합은 작가만의 독특한 화면을 만들어내며 고유성을 드러내고, 경쾌한 울동감도 만들어낸다.

전시작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아크릴이나 유화물감이 아닌 페인트의 삼원색을 혼합해 표현했다. 테이프를 활용한 ‘꽃 창살’과 드리핑 기법의 ‘들꽃’ 시리즈, 설치, 면 분할 작품 등 다양한 작품들은 경쾌한 색, 리듬감 있는 기법이 어우러져 눈길을 끈다.

이 작가는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및 원광대학교 대학원(서양화 전공)을 졸업했다. 지금까지 32회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서울대, 원광대 등에서 강사로 30여년 동안 활동했다.

전북예술상(2003), 중앙일보 대상전 특선(2003) 등을 수상했으며 현재 전북일보에 ‘이승우의



‘꽃 창살과 망초’

미술 이야기’를 연재하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40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Since 1982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앞	062) 227-994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